

불자 세상보기



유정길  
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평화재단 기획위원

오래전에 우리 단체의 대학생회에서 미래사회의 새로운 방향과 청년들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스승들을 찾아 다니는 '선재기행'을 다닌 적이 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응용한 것이다. 이 기행중에 일정기간은 훈련삼아 무전여행으로 다녀왔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전여행중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감사하며,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는 말을 했다.

제로 성장사회를 사는 법

면, 결국 거리에서 자동차를 세워 태워 달라고 히치하이킹(Hitchhiking)을 해야 한다. 배가고프면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아쉬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술의 밥을 청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결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하며, 당연히 겸손하게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돈다 모두 성장과 생산력주의, 풍요를 진보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오늘의 위기를 만든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뛰어넘는 경제시스템으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1844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공적성구자조합'

인류탐욕으로 환경위기 맞아

사람간의 협력과 의존성 높여야

ICA 가입 협동조합...70만개

이후 협동조합은 소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에 이어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전력공급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크게 확대되어 발전해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되어진 협동조합수만도 70여만

개이고, 90여개국의 10억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대신 주식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이 표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개발적이고 성, 인종에 차별없는 문화개방, 둘째, 출자한 사람이 1인 1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셋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이용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고, 넷째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다섯째는 조합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여섯째는 협동조합간의 연대, 일곱째는 지역사회에 기여이다.

작년 2011년 말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12월부터는 5명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와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많아 지길 기대하며, 불교에도 이러한 많은 조직화 활동이 발흥하길 바란다.

社說

간화선 학술대회에 온 해외학자들

국내의 석학들이 6월 23-24일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해 동국대 중앙당에서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린 담론을 전개했다. 이들은 공주 마곡사 무쌍선원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지도 하에 1주일간 간화선을 실천하며 그 동안의 선불교에 대한 연구와 실제 수행과의 관계를 스스로 찾았다.

간화선 실천 자리에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의 석학 5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국제학술대회와 동참자들의 다수는 대학 강단에서 동아시아불교와 선불교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세계학계를 주도하는 대학교수들이 간화선을 체험하는 것은 그 사실 만으로도 큰 의미다.

하지만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렸

음에도 주제에 맞지 않은 논문을 제출한 해외학자들이 상당수 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적어도 행사 주제와 맞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주최 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대회 측 역시 세계학자들에게 간화선을 알리는 자리의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3회를 맞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간화선과 선불교 전방의 영문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한국서 열렸음에도 한국 선불교의 영문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대회까지 간화선 국제세미나와 실천 현장에 참여한 학자들은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아직도 간화선은 세계인들에게 낯설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세계 불교학계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화강좌 사찰 포교 좋은 방안

사찰이나 부속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요즘 인기다. 주부들이 댄스, 노래 배우기 등 문화강좌를 통해 다져진 실력을 사찰행사나 봉사활동 시 문화공연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문화강좌에 사람들이 몰리는 큰 이유다.

문화강좌는 사찰이나 수강생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양측 모두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수강생들은 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교문화를 복합적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해 지는 심성교화 효과가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일반 문화센터처럼 상업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뻘뻘하게 짜여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사찰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절을 개방하고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문화강좌를 들으러 왔다가 절과 친숙해져 신도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보통 절에 와서 법회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기 마련인데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하게 되

면 그만큼 사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화사 주지 묘강 스님에 따르면 3년 정도 지나면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는 등 포교와 연결이 됐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이렇게 문화포교의 한 방안이 되는 사찰 문화강좌의 성패는 실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진 섭외에 달려 있다. 여기에 문화적 트렌드가 쏠려 살려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 수준에 맞게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강사도 섭외하고 수강생도 모집해야 문화강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근 사찰과 연계한 기획 홍보도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포교의 방법론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 이 문화 강좌만 더 활성화 시켜도 사찰의 좋은 포교 방안이 될 것이다.

사부대중 발언대

불징계권은 '평등권' 위배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조계종중앙총회의원 불징계권은 종헌 제36조와 38조에 명시된 중앙총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중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있다. 중법에는 이는 오래 전부터 종도들에게 중앙총회의원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총회는 조계종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 입법기구다.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중앙총회의원 '불징계권'은 평등권의 위배이다. 이미 종헌 37조에는 '중앙총회의원이 직무 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이는 자신이 총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임할 때 문제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의원 스님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중앙총단의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쉽게도, 중법 안에서 징계를 결의 인원을 축소할 것도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다.

첨언하자면 총회의원 '불징계권'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이 쌓인 것은 그간 총무원의 잘못도 없지 않다. 총회의원 징계가 제적의원 2/3 이상의

울장과 윤리 벗어나면

누구라도 징계 받아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징계 사안을 총회에 올리지 않았다. 추상같은 울장과 사회 윤리에 벗어난다면 누구라도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관한 것이 된다.

이번 총회는 쇠신 입법의 골간을 잡는 자리였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종도들의 격려와 조언, 건전한 비판이 중앙총회에 쏟아지길 바란다. 그래야 한국불교가 바로설 수 있다.

과학까지 개신교가 점령하나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진화론의 패배'. 최근 신문지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이다. 개신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회)는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교과서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고교 융합 과학교과서 7종 중 5종에서 이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논란이 뜨겁다.

교진회의 논리는 이렇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진리가 아닌 가설이다. 창조론을 기반한 지적설계론 역시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공교육 과학 교과서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단체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유수의 과학논문지 <네이처>가 한국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퇴조를 우려할 정도가 됐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기하학이 영원한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주에는 여러 우주가 있고, 이 우주들은 우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끊임 없이 진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제 세삼스럽지 않은 사실이 다.

특정 종교 주장 관철 문제

창조론 교과서에 못 실어

분명,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지고 말할 수 없다. 교육 사회는 최첨단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수 많은 일선 교사들이 연구와 공부에 매진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백년 전에 있었던 개개목은 소모적 논쟁을 배우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창조론은 교과서에 실릴 수 없다. 나쁜 교육은 나쁜 결과를 낳을 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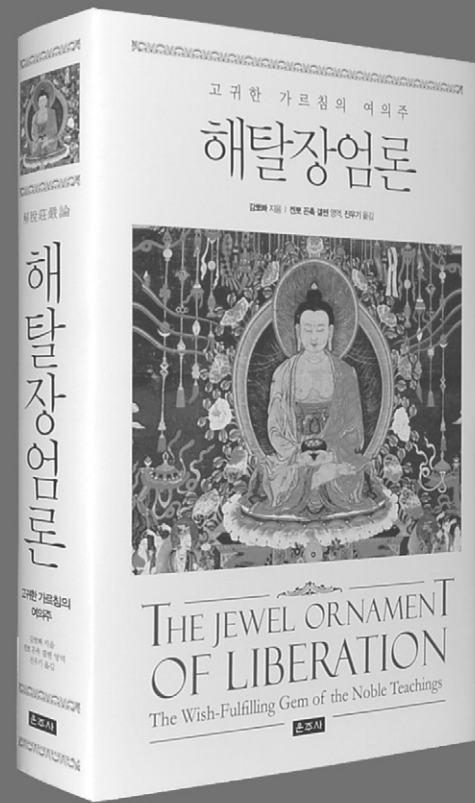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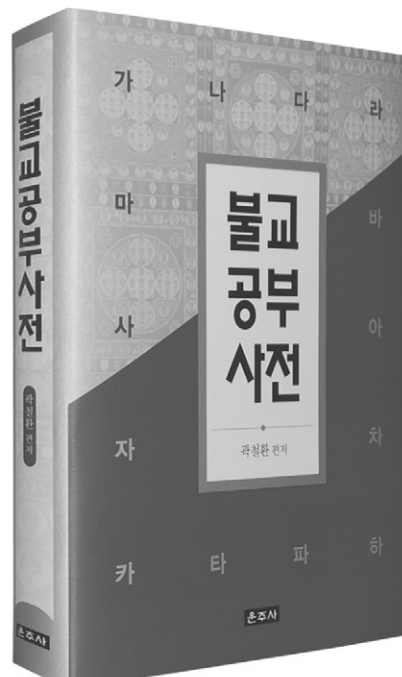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서!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뵘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미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뵘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뵘빠 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